



고가 수입목 “체리목” 우리 나라에서도 잘 자란다

- 체리목 1㎡당 3백만원 -

- ◆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잣나무, 낙엽송 등의 목재가격보다 15배 이상의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 “체리목(세로티나벳나무)”이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잘 적응되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집중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체리목(장미과)의 학명은 *Prunus serotina* Ehrh로 북미에서 자라는 나무로 원산지에서도 재질이 뛰어나 상업적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으며, 1960년경에 원산지에서 종자를 도입 현재 임업연구원 홍릉 야산에 30여 그루가 나무나이 40년, 높이 18m, 가슴높이 직경 45cm로 성장하고 있다.
- ◆ 현재, 40년생의 체리목 한 그루 당 통나무로 쓸 수 있는 지하고(지상에서 첫 번째의 큰 가지까지)가 평균 7m, 목재재적으로 환산할 때 1.5㎡으로 4백만원의 목재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
- ◆ 이 나무에 대한 성장 및 적응력을 다시 한번의 검증을 위하여 1985년도에 경기도 광릉(중부임업시험장)에 1,500본을 식재하여 본 결과, 현재 17년생의 나무높이가 16m, 가슴높이 직경 18cm로 우수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 수원에 심겨진 시험림에서도 뛰어난 적응력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 ◆ 한편, 임업연구원 관계자는 세계의 목재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체리목이 우리 나라 산지에서 적응하여 생육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임업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금후, 체리목 등을 비롯한 “유망외국수종에 대한 집중 연구”를 위하여 2003년부터 새로운 시험제목으로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목재류 가격

(2002년 4월 현재)

원목(국산재)

(원/m³)

품명	규격	가격	전월대비
잣나무	2등	144,000	▲18,000
소나무	2등	147,000	▲3,000
낙엽송	2등	109,800	▲2,470
참나무류	2등	105,000	

15~30cm×2.7m이상

※ 생산지가격임

각재(국산재)

(원/m³)

품명	규격(m×cm×cm)	가격	전월대비
잣나무	2.7×3.9×5.1	238,000	▼2,000
소나무	2.7×3.9×5.1	288,750	▼14,010
낙엽송	2.7×3.9×5.1	228,430	▲4,180

※ 생산지가격임

특수목

(원/m³)

품명	규격	가격	전월대비
흑호도나무	8/4, 최상급	3,090,000	▲150,000
오리나무	"	1,500,000	-
루브라참나무	7/4, 최상급	2,040,000	-
단풍나무	"	2,400,000	-
세로타나뽕나무	8/4, 최상급	3,150,000	-

제공: 영림목재(주) 032-811~9051~9

상차도, VAT포함

판재(외재)

(원/m²)

품명	규격(m×cm×cm)	가격	전월대비
뉴송	3.6×30×3.0	324,000	-
라왕	3.6×24×2.4	324,000	-
	3.6×24×3.0	780,000	-
	3.6×24×3.6	810,000	-
	3.6×24×4.5	780,000	-